

**한** 교사가 있다. 학급운영 소질이 뛰어나다고 주변 칭찬이 자자하다. 이 교사가 맡은 학급 아이들은 결석은 물론 지각, 조퇴도 전혀 없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서 상도 곧잘 탄다. 무엇보다 이 학급은 아이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고도 없다. 이 학급 아이 중 누구도 징계를 받아 본 일이 없다. 성적도 늘 상위권이라서 학부모들도 좋아한다.

이 학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대체로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한다. 수업시간에도 집중을 잘 하고 과제 이행도 역시 높아서 교과 담당교사들이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잘 형성된다. 모든 아이들에게 역할이 주어져 있어서 아침자습 시간부터 청소 시간까지 각자 정해진 역할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인다. 한 마디로 '모범학급' 이다.

주목할 것은 이 교사가 매년 담당하는 학급은 이런 모범학급이 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학급운영은 교사가 하기 나름' 이라는 말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이 교사는 정말 '바람직한 학급운영' 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학급을 잘 관리' 하고 있는 것일까?

‘참여와 소통이 있는 학급’ 만들기 ①

# 학급운영에도 철학이 있다 !

교실밖교사커뮤니티(eduict.org) 중등학급운영연구팀

이번호부터 교실밖교사커뮤니티(교컴 · eduict.org)와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이 있는 학급 만들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 편집자 주





## 정말 '바람직한 학급운영'은 뭘까?

해마다 새 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 만날 학급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설렘 반 두려움 반이다. 그리고 올해 학급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고민을 하게 된다.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 생활하면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의구심들이 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한 것이 잘 한 것일까?'

그러면 지난 학급운영 사례를 되돌아보고, 주변 선생님들 사례를 살피거나,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된다. 그럼 참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몇 몇을 골라 학급 운영에 적용해 본다. 모둠일기, 학급야영, 학급문집, 학급카페 운영 등. 해보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알게 된다.

'아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지? 왜 옆 반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엔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반에서는 먹히지가 않을까? 내가 뭘 잘못 했을까?' 이런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 사 례 1

#### 아침자습 운영

**A반** \_ 다른 반보다 10분 일찍 등교. 늦으면 1분에 벌금 100원씩. 아이들은 지정된 자습 내용을 일사불란하게 해낸다. 담임선생님의 꼼꼼함과 열성이 놀랍다.

**B반** \_ 역시 다른 반보다 10분 일찍 등교. 지각한 학생 혹은 아침자습 시간에 숙제를 하거나 잠을 자는 아이들에게 교사가 아침자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또 설명한다. "하루 20분씩 6일이면 무려 2시간이나 돼. 무언가를 꾸준히 해내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단다. ..."

### 사 례 2

#### 모둠별로 밥 비벼 먹기

**C반** \_ 밥과 반찬 준비부터 밥을 비벼 먹은 뒤 놀이와 뒷마무리까지 아이들 모두 시끌벅적 화기애애하다. 가끔씩 돌발 사고가 생기지만, 교사는 무심한 듯 별 타박을 하지 않는다.

**D반** \_ 준비가 소홀한 모둠에 교사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이런 책임감이 없고, 불성실한 ...." 진행 중에 엉뚱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이다. 아이들은 움찔움찔 놀라고 긴장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

〈사례1〉의 경우 아침자습을 위해 학생들을 미리 등교시켜 강제적으로 자습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선생님들 노고(?)에 감사하는 경우도 있다. A반처럼 벌칙을 적용해서라도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B반처럼 지속적으로 아침자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하여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경우도 있다.

〈사례2〉와 같이 학급 아이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을 보여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밥 비벼 먹기 행사를 했는데, D반처럼 미꾸라지 같은 아이들을 꾸지람하고 정돈하느라 서로 마음만 더 상하고 말았다. 그럼 대체 우리 반에는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굳이 한 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우선 '바람직한 학급운영'과 '학급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 같다. 학급운영에 소질 있다는 교사들이 '기술

(테크닉) 중심 학급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 학생을 주체로 참여시키는 능력이 관건

학급 담임의 전문성은 다양한 학생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고 적용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을 주체로 참여시키는 능력이다.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늘 같은 것 같지만 매번 다르고, 만나는 아이들도 항상 같은 것 같지만 모두 다르다. 이런 여러 상황에 언제나 꼭 들어맞는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같은 재료와 조리 기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똑같은 맛의 된장찌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집마다 음식 맛이 다르고, 같은 집에서도 누가 요리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학급운영과 관련한 다양하고 좋은 사례들을 쉽게, 많이 얻을 수 있다. 술하게 고민하고 선별하여 우리 반에 적용해보지만, 항상 흡족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 같다.

이는 매 순간 재료와 도구가 바뀌기 때문이 아닐까. 아이들의 발달 특성, 개개인의 경험과 문화의 차이 등 다양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학급운영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은 결국 담임교사의 능력이다.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담임교사이고, 그 특성들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은 교사가 가진 능력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능력의 중심에 교사의 교육관과 학급운영 철학이 있다. 어떠한 도구를 선택하는가는 하는 사람 마음일 테니 말이다.

#### 담임교사 전문성 중 으뜸은 학급운영 철학

### 사 례 3

#### 학급회장 선거

**F학교 E반** \_ 학급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투표까지 자체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나온 절차에 따라서 학급회장을 뽑았다.

**F학교 교장** \_ 모든 학급에 E반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투표 절차를 따르도록 지시한다. 이에 따른 모든 서류 양식을 배포한다.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학급도 있지만, 대부분 학급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교사를 불만이 높다.

〈사례3〉의 E반의 경우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스스로 약속한 선거관리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평소 담임교사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고, 올해 학급운영의 목표를 '다양성이 인정되는 민주적 학급'으로 정하는 등 정성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교사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 과정과 그에 따르는 각 규정이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매 과정마다 거듭 설명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아이들도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점을 뿌듯해 했다.

하지만 이렇게 선출된 학급회장이 각 교과 선생님과 심부름만 한다면 어떨까? 학급회의 시간이 없거나 학급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흐지부지되고 만다면, 혹은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에 학생들이 의견이 수렴되고 회장이 그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위의 선출 과정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고 말 것이다.

F학교 교장선생님은 E학급의 사례를 모범적이라고 판단, 모든 학급에 적용시키도록 하였다. 하



지만 각 담임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과 적용 방법에 대한 연수를 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강제하면 별 소용이 없다. E반을 제외한 다른 학급의 교사와 학생들은 이런 과정 자체를 쓸데없고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두 사례에서 결여된 것은 무엇일까?

E반의 학급회장 선출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학습이었지만, 정작 뿌리부터 민주적이지는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나의 프로그램을 도구나 팁으로만 사용할 때 그 효과는 일시적으로 끝나고 말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위 두 경우를 모두 '나쁘다' 혹은 '실패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과정 모두 시행착오의 과정이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고민과 방법들이 나올 테니 말이다.

좋은 방법이나 사례가 있더라도 담임교사가 어떤 학급운영 철학을 가지고 학급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교육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좋은 사례들을 적용하느라 교사도 힘들고 아이들도 바쁘기만 한 학급이 아니라 학급운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들을 적용해 보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

### 바람직한 학급 = 참여와 소통이 있는 학급

그렇다면 바람직한 학급운영 철학은 무엇일까?

우리 교육의 목표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색깔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통한 다양한 의견들의 소통, 그 안에서 함께 결론을 내고 일을 진행시켜나가는 방법의 습득, 바로 이것이 궁극의 목표가 아닐까.

물론 학급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근본 뿌리를 이루는 가정(학부모)과의 관계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학급을 운영하는 가장 큰 주체인 담임이 스스로 한 번 파악해 봐야 하지 않을까? 담임교사의 생각과 준비 정도, 그것이 학급 안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가 민주적 학급운영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학급은 학교의 구성단위이므로 학교의 의사결정이나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담임의 여러 활동이 학교의 결정에 의해 장려되거나 제지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학교 시스템과 교사 문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담임교사 개인만 능력 있고 성실하다고 해서 학급이 바람직하게 운영되지 않는 큰 이유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술 중심 학급운영 자료'는 도처에 널려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 자료들을 '아이들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이 있는 학급운영'에 적용하기 위하여 어떻게 추려내고, 조합하며 어떤 시기와 어떤 분위기에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이야기를 앞으로 몇 달 동안 나누어서 해보도록 하겠다. **02**